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10 [36~40]

(가)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 자로 돌아 서천(西天)을 가리키니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秋氣)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의 들거고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의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한다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일 공생한다
 백곡의 이삭 께고 엮을 들어 고개 숙여
 ㉠ 서풍의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백설 같은 면화 송이 산호 같은 고추 다래
 처마의 널었으니 가을별 명랑하다
 ㉡ 안팎 마당 닭아 놓고 발채 망구* 장만하소
 면화 따는 다락기의 수수 이삭 콩 가지오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 다래 산과로다
 뒷동산의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 대어 쓰게 하소
 명주를 끊어 내어 추양에 마진하고*
 쪽 들이고 잇 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그 남아 마로 재어* 자녀의 혼수하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 -

- * 발채 망구: 농사 도구들.
- * 마진하고: 표백하고.
- * 마로 재어: 재단하여.

(나)

㉠ 정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담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담교할 줄 모로난고
 이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되잔되 속임 나니
 만물이 화락(和樂)한디 우리 임은 어디 가고
 춘기 든 줄 모로난고
 삼월 삼일 날의
 ㉢ 강남서 나온 체비 왓노라 현신(現身)하고
 소상강(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행화방초(杏花芳草) 훗날린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로난고

[A]

사월 초파일에
 관동하러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遠近) 고저(高低)의
 석양은 빗겼는데 어룡등 봉화등과
 두루미 남성이며 종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박등 마늘등과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우희 천녀(天女)로다 배등 집등 산되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獅子) 탄 채팔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노 툇 차 구울등에 일월등 밝아 있고
 칠성등 버러난디 동령(東嶺)의 월상(月上)하고
 곳고지 불을 현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관동(觀燈)할 줄 모로난고

- 작자 미상, 「관등가」 -

- * 담교: 다리를 밟는 풍속.
- * 임고대하니: 높은 곳에 오르니.

(다)

서리빙아리*와 달리, 새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 병아리는 아
 림답고 튼튼하다.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궁둥이를
 내두르며 아그작 아그작 걷는 어미 닭의 당찬 모습도, 봄빛이
 무르녹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어미 닭은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애는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나서곤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흠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미 닭이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 주곤 했던 것이다.
 오일장에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열 개쯤 심겨 있었다.

아무튼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중략)

언 대지를 녹이는 봄기운이 초목의 싹을 틔우고, 얼었
 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 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
 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강가에는 빙렬(氷裂) 현상이 일어난다.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 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 닭의 오
 [B] 랜 포란(抱卵)의 인고가 끝나고 십여 개의 달걀들이 부화
 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
 로 껍데기를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
 다.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은 즉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 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 닭
 이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뜨리는 일을 줄
 탁동시라고 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
 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해 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딱딱한 알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
 리는 그 힘이 놀랍다. 병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것들
 의 생명력이 그렇다.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은 땅
 을 뚫고 솟아오르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목의 새싹·햇순·속잎
 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르죽어 있던 ㉠ 햇빛이 노란색
 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오래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시끌썩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복숭이 봄 병아리가 생각
 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신생의 이미지 때문이다.

- 현기영, 「신생」 -

- * 서리빙아리: 이른 가을에 알에서 깨 병아리.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화자는 천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천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다.
- ② [A]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게 된 이유를, [B]의 글쓴이는 부회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 ⑤ [A]의 화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B]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품의 형식이 일 년 열두 달을 차례대로 맞추어 가며 구성된 시가를 '월령체'라 한다. 조선 후기의 '월령체'는 내용상 농사요와 애정요로 나눌 수 있는데 (가)와 (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농사요 (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창작한 작품으로, 달의 변화에 따른 농사 일정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한 시가이다. 애정요 (나)는 부녀자가 창작했다고 추정되는 작품으로, 부재하는 입에 대한 상사와 연정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 시가인데, 각 연에서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놀며 즐기는 유락적(遊樂的) 요소를 지닌 서민들이 보다 즐겨 감상하였다.

- ① ㉠은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는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는 부모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는 상사의 매개가 되는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는 유락적인 속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 해소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은 내적 갈등의 해소와, ㉧은 내적 갈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
- ④ ㉦과 ㉧ 모두 세월의 흐름과 관련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
물이 지닌 속성에서 발견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병아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푸른 하늘'을 선회하는 '술개'를 통해, 진취적 기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을 통해, 약자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어린 새싹'을 통해, 성장할 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보 기>

작품의 형식이 일 년 열두 달을 차례대로 맞추어 가며 구성된 시가를 '월령체'라 한다. 조선 후기의 '월령체'는 내용상 농사요와 애정요로 나눌 수 있는데 (가)와 (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농사요 (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창작한 작품으로, 달의 변화에 따른 농사 일정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한 시가이다. 애정요 (나)는 부녀자가 창작했다고 추정되는 작품으로, 부채하는 임에 대한 상사와 연정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 시가인데, 각 연에서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놀며 즐기는 유락적(遊樂的) 요소를 지녀 서민들이 보다 즐겨 감상하였다.

✓ 읽기 전 활동

(가)와 (나) 시가 모두 '월령체' 형식으로 창작된 시가임을 알려주는 <보기>입니다. (가)의 경우 월령체 형식의 농사요로,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사 일정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지은 시가입니다.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가)에 비해 유락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시가로, 부녀자가 창작하여 애정에 대해 노래한 시입니다. <보기>를 통해 (나) 시가에서는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 자로 돌아 서천(西天)을 가리키니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秋氣)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의 들거고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의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했듯 '절기'중 하나인 '백로'와 '추분' 시가의 농촌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력 팔월 중추절, 그리고 백로와 추분을 통해 가을의 정경이 앞으로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북두칠성이 자로 돌아 서천을 가리키니 아침 저녁으로 가을 기운이 완연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을 기운이 완연해져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밤이면 이슬이 내리는 일교차가 큰 가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일 공생한다
 백곡의 이삭 꽤고 염을 들어 고개 숙여
 서풍의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백설 같은 면화 송이 산호 같은 고추 다래
 처마의 널었으니 가을별 명랑하다
 안팎 마당 닭아 놓고 발채 망구* 장만하소
 *발채 망구: 농사 도구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이제 가을이 되어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된 ‘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힘들인 농사가 ‘백곡’의 이삭을 열리게 하는 가을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한 화자는 서풍의 익은 빛은 ‘황운’과 같으며 누런 벼 논이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벼 뿐 아니라 면화, 고추, 다래 등도 열리는 계절이므로 이러한 작물을 처마에 널어놓고 있으니 가을 햇빛이 명랑하다고 말하는 화자입니다. 수확의 시기가 다가오니 안팎의 마당을 닭아 두고 농사 도구를 장만할 것을 권고하는 모습에서 <보기>에서 언급한 실용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면화 따는 다락기의 수수 이삭 콩 가지오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 다래 산과로다
 뒷동산의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 대어 쓰게 하소
 명주를 끓여 내어 추양에 마전하고*
 쪽 들이고 잇 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그 남아 마로 재어* 자녀의 혼수하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 -
 *마전하고: 표백하고.
 *마로 재어: 재단하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목화 따는 바구니에 수수 이삭과 콩을 담고, 나무꾼이 돌아올 때 머루와 다래같은 산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는 가을의 풍족한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뒷동산에는 밤과 대추가 열려 아이들이 열매를 따러 다니니 이렇게 따온 밤을 말려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하라는 권고에서 실용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주를 끓여 내어 표백하고, 물을 들이니 색색으로 아름다운 명주천이 완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렇게 만든 명주천으로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남는 것은 자녀의 혼수품으로 쓰라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기>에서 언급한 실용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가을날의 풍족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경을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보기>에서 말했듯 실용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권고사항들이 시 내부에 존재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을의 풍경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이 주를 이루는 시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나)

정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담교(踏橋)*하고 노니는대
 우리 입은 어디 가고 담교할 줄 모로난고
 *담교: 다리를 밟는 풍속.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앞서 <보기>에서 말했듯 월령체의 형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담교를 하며 노는데 ‘우리 입’이 자신의 곁에 없기에 담교하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디잔디 속입 나니
 만물이 화락(和樂)한디 우리 입은 어디 가고
 춘기 든 줄 모로난고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2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봄 기운이 들고 잎이 나니 만물이 즐거워하는데 입은 어디에 갔기에 이렇게 봄이 오고 있음을 모르는지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월 삼일 날의
 강남서 나온 제비 왓노라 현신(現身)하고
 소상강(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행화방초(杏花芳草) 훗날린다
 우리 입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로난고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삼월 삼일에 강남에서 제비가 날아오고 소상강 기러기는 돌아가며 본격적인 봄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배꽃과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살구꽃과 들꽃들이 훑날리는 봄의 풍경 속에서 화자는 다시 임의 부재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월 초파일에

관등하러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遠近) 고저(高低)의
 석양은 빗겨는데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이며 중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박등 마늘등과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우희 천녀(天女)로다 배등 집등 산티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獅子) 탄 체팔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노 툽 차 구울등에 일월등 밝아 있고
 칠성등 버러난디 동령(東嶺)의 월상(月上)하고
 곳고지 불을 현다 우리 입은 어디 가고
 관등(觀燈)할 줄 모로난고

- 작자 미상, 「관등가」 -

* 임고대하니 : 높은 곳에 오르니.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월 초파일에 연등을 달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 석양이 비치는 상황에서 화자는 등불 종류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룡등, 봉학등, 두루미, 자라 등과 같이 다양한 등의 이름과 사자 탄 나무인형 '체팔'과 호랑이 탄 오랑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이렇듯 화려하게 벌려놓고 있는 와중 동쪽 언덕에 달이 뜨고 곳곳에서 등불에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은 부재한 상황이기에 화자는 임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1월부터 4월까지 화자의 한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각 달의 경치와 풍경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임의 부재를 깨닫고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기>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발견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짧은 보기인만큼 간단하게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물에서 정신적 가치를 찾는 글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만 인지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때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연물에서 어떤 정신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지에 유의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다)

서리병아리*와 달리, 새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 병아리는 아름답고 튼튼하다.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궁둥이를 내두르며 아그작 아그작 걷는 어미 닭의 당찬 모습도, 봄빛이 무르익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어미 닭은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애는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나서곤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흠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미 닭이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 주곤 했던 것이다. 오일장에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열 개쯤 심겨 있었다.

아무튼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중략)

* 서리병아리 : 이른 가을에 알에서 깬 병아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가을에 태어난 병아리와 다르게 봄에 태어난 병아리는 튼튼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어미 닭이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에서 모성애를 느끼고, 어미 닭이 마치 궁핍한 시절에 어린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어머니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어린 시절에 본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한 글쓴이는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자신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언 대지를 녹이는 봄기운이 초목의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 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강가에는 빙렬(氷裂) 현상이 일어난다.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 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 닭의 오랜 포란(抱卵)의 인고가 끝

나고 십여 개의 달걀들이 부화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데기를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다.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은 즉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 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뜨리는 일을 **출타동시**라고 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언 대지를 녹이는 봄기운으로 인해 초목이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강에는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강가에는 ‘빙렬’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빙렬’에 대해 말하는 글쓴이의 설명을 보자면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을 만’드는 현상으로, 글쓴이는 이러한 자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달걀들이 부화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아리를 ‘신생’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해 왔던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딱딱한 알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이 놀랍다. 병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이 그렇다.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목의 새싹·햇순·속잎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르죽어 있던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으레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복숭이 봄 병아리가 생각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신생의 이미지 때문이다.

- 현기영, 「신생」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자신이 안주해 왔던 세계를 깨고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연약한 병아리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글쓴이는 병아리가 다른 식물과 달리 막 태어났을 때 노란색인 점도 흥미롭다고 말하는데, 병아리의 신생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이 올 때 어린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봄 병아리를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병아리’에서 ‘생명의 탄생’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글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 병아리의 탄생으로 대표되는 생명의 탄생과 약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을 이해한다면 해석에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가)는 8월의 늦여름과 가을 사이의 풍경을 바탕으로 수확과 풍요의 계절에 해야 할 일의 권고와 풍경의 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1월부터 4월까지 늦겨울부터 초봄까지의 풍경을 바탕으로 임이 없어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는 봄의 풍경을 바탕으로 생명의 신생이 병아리로 대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② (가)~(다)는 모두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대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의 경우 가을의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마을이, (나)의 경우 크게 공간이 드러나지 않으나 ‘입고대’ 한 곳에서 느끼는 임의 부재가, (다)의 경우에는 봄 병아리에 대해 회상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날 뿐 공간이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③ (가)와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가)의 경우 ‘들거고나’, ‘장만하소’와 같은 대화체와 ‘절기로다’, ‘재촉한다’와 같은 독백체의 교차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오직 독백체로만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④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가)의 경우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으며, 세상과 거리를 두는 태도 또한 아닙니다. 가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권고를 내리는 것으로 보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 역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골목 안에서 시끌시끌한 소리를 생각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보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나)와 (다)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가 아님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어적 표현 역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① [A]의 화자는 천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천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다.

→ [A]의 화자는 천상에 있지 않습니다. '임고대'한 것이 천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높은 곳에 올라간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천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단순히 등불의 모습을 나열하며 임이 없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지상의 사물인 '병아리'를 예찬하고 있을 뿐, 천상의 사물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A]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게 된 이유를, [B]의 글쓴이는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A]의 화자는 임이 없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을 뿐,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B]의 글쓴이는 병아리가 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 뿐,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③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등불들을 '어룡등', '봉학등', '두루미 남성이며', '종경등'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B]의 글쓴이는 병아리의 부화와 병렬 현상의 유사한 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 [A]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 [A]의 화자는 단순히 등을 걸기 위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상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의 공간입니다. 또한, [B]의 글쓴이는 특정 현상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뿐,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⑤ [A]의 화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B]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A]의 화자는 '임'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의 경우 글쓴이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⑤

<보 기>

작품의 형식이 일 년 열두 달을 차례대로 맞추어 가며 구성된 시가를 '월령체'라 한다. 조선 후기의 '월령체'는 내용상 농사와의 애정요로 나눌 수 있는데 (가)와 (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농사요 (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창작한 작품으로, 달의 변화에 따른 농사 일정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한 시가이다. 애정요 (나)는 부녀자가 창작했다고 추정되는 작품으로, 부재하는 임에 대한 상사와 연정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 시가인데, 각 연에서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놀며 즐기는 유락적(遊樂的) 요소를 지닌 서민들이 보다 즐겨 감상하였다.

- ㉠ 안팎 마당 닭아 놓고 밭채 망구 장만하소
- ㉡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 대어 쓰게 하소
- ㉢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 ㉣ 정월 상원일에 /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躑躅)하고 노는데
- ㉤ 강남서 나온 제비 왓노라 현신(現身)하고 / 소상강(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① ㉠은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안팎의 마당 닭아 놓고 농사 기구를 장만하라고 말하는 점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한 작물들을 털 마당과 농사 기구를 장만하여 수확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⑥는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⑥의 경우 '알밤'을 모아 말려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라는 것으로,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③ ③은 부모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의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니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장례 절차를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교적 윤리 중 하나인 부모의 장례에 대한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④는 상사의 매개가 되는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의 경우 '답교 하고 노니는' '달과 노는 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임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난고'라며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답교'라는 세시 풍속이 상사의 매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⑤는 유락적인 속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 해소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는 강남에서 제비가 돌아오고 소상강의 기러기는 떠나는 상황입니다. 봄의 상황에 여전히 '임은 어디 가고' 돌아오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별의 정한이 심화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서풍의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 ㉡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① ㉠은 ㉡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은 8월 들뜬 풍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미래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 경우 미래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병아리가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② ㉡은 ㉠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은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봄 병아리'가 생각나곤 한다면서 특정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 경우에는 특정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은 내적 갈등의 해소와, ㉡은 내적 갈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

→ ㉠의 경우에는 내적 갈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아무 연관성 없는 선지이며, ㉡ 역시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므로 연관성 없는 선지입니다.

④ ㉠과 ㉡ 모두 세월의 흐름과 관련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 ㉠과 ㉡ 모두 세월의 흐름과 관련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시가 모두 인생의 무상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⑤ ㉠과 ㉡ 모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 ㉠과 ㉡ 모두 구도적인 자세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등장하는 (다) 시가에서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병아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 부분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탐구적'으로 바꾸어 해석하면 편하게 해석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보 기>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발견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①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병아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병아리'를 통해 글쓴이는 '봄 병아리'의 생명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② '푸른 하늘'을 선회하는 '솔개'를 통해, 진취적 기상을 드러내고 있군.

→ '푸른 하늘'을 선회하는 '솔개'는 '병아리'의 천적으로, 이를 보호해주는 '어미 닭'의 모습에서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매개일 뿐, 진취적 기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③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을 통해, 약자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군.

→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을 통해 모성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헛갈릴 여지가 있어 보이는 선지로, '약자'를 감싸는 포용력으로 보고 헛갈렸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약자'를 포용하는 의미보다는 '새끼'를 감싸는 모성애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게다가 '허물'을 감싸는 것은 약자의 잘못을 감싼다는 내용이므로 더더욱 틀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④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를 드러내고 있군.

→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딱딱한 알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과 같은 강인한 생명력과 '자신이 안주해 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⑤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여린 새싹'을 통해, 성장할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여린 새싹'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장할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과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 선지입니다.